

野 '현역 20% 물갈이' 혁신안 새정치 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김상곤 "당론 정면부정도 해당행위-평가대상 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내내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진중 끝에 확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규를 상정,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지만 표결까지는 거치지 않고 박수로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평가위원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다면평가 등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재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박주선 의원은 당무위 도중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의 운명을 외부에 맡길 정도라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지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지 의원을 점수화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에 앞서 전국 시도당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강창일 의원은 "혁신위가 너무 서두르고 있고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통합을 위해 애쓰고 대화하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문제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적절한 답변이 나와 (의문이) 모두 해소됐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지적된 문제들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시행세칙과 내부규정을 만들 때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심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 재심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다루지는데 (여기에 재심규정을) 둘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100% 외부 평가위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는 100% 외부 평가위원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의원들이) 이해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무위 의결로 혁신위는 바로 '공천 룰' 개혁안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공천 룰 개혁 작업에 따라 물갈이 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이를 반영하듯, 김상곤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당론을 정면 부정하

는 것도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이 자기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당행위적 이야기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평가 및 판단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국 혁신위원회도 CBS 라디오 방송에서 "1차로 배제되는 분이 20%이다. 몇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20%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전날 공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분별과 갈등을 조정하고 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도 새정치연합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공천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룰 개정에서 물갈이 폭이 확대된다면 호남과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사무총장직 폐지 및 5분부장제 도입,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치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5분부장제의 업무분장에 대한 비노 측에서 최재성 총무본부장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추후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당직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날개 꺾인 '친노의 대모'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또 한 전 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내 친노(친노무현)계의 '대모'격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내 친노 입지가 일정 부분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968년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본인도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들어가 본격적인 여성운동의 길로 접어들었다. 1979년에는 이 모임에서 이념서적을 학습·반포한 혐의로 불검거 2년간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에 영입돼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참여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지역구(고양 일산갑)에 도전, 당시 한나라당의 정치적 거

한명숙 전 총리 '의원직 상실'

친노그룹 '도덕성'에도 상처

문재인 "법원까지도 정치화"

물인 흉사덕 전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2006년에는 참여정부에서 사상 첫 여성총리에 임명되면서 정치인생의 정점을 찍었고,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기도 했으며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으나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석패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초대 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19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취임 89일 만에 사퇴했다. 총선 당시 '친노패권주의' 공천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책임론이 시달렸다.

검찰과 법정 다툼도 이어졌다. 5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5만달러 뇌물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서 혐의를 벗어났지만 9억원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끝내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게 됐다.

한 전 총리의 확정판결은 친노그룹에 부정적인 여파를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노(주류)-비노(비주류) 갈등이 첨예한 상태에서 친노의 '도덕성'이 상처를 입은 만큼 제한적으로나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한 전 총리의 판결에 대해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공천혁신이 호남물갈이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부글부글'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안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천 개혁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부담스러워 드러내놓고 반발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호남 물갈이'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지난 19일 만찬 회동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강했다. 공천 혁신의 타깃이 '호남 물갈이'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총선 때 마다 호남 의원들이 상징적으로 희생돼야 하는 '조공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전남의 중진 의원은 "총선 때마다 친노 및 주류 측에서 호남 정치권에 대고 '몇 석 조공을 바쳐라'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이번 공천 혁신도 호남 정치권이 주요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공천개혁안에 대해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며 "평가위원을 100%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다는데 국회 사정을 잘 모르고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할 수 있겠느냐. 기준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광주 의원들도 공천 혁신안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에서 최소 2~3명의 공천 배제설이 제기되는 등 혁신되는 후폭풍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당지지가 높은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공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광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훨씬 더 내실있고 경쟁력이 있다"며 "하지만

공천 혁신안이 나오면서 문자마식의 물갈이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난감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가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 만찬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강력 촉구했기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원일치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직에 복귀, 주류 및 친노 진영의 공천 전환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주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의원직 승계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 등 두루 거쳐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의원의 후임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신문식(사진)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고흥 출신인 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번 22번을 받았으며 중앙선관위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앞서 지난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후보에 순번을 올렸지만, 국회에 입성은 하지 못했다.



신문식 전 부총장은 "뒤늦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지만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에 침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주어진 임기 동안 호남의 발전과 새정치연합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상세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